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과학기술학 X SF
김초엽 소설 세계 함께 읽기

전대애서52 함께 읽기 겨울방학 랜선 특강

신청기간

21. 1. 19. 화 ~
특강 전날까지

대상

전남대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청방법

기초교육원 누리집(<https://le.jnu.ac.kr>)에서 신청

- 학생지원 > 특강 및 워크숍 > 의사소통 특강 > 신청하기
- 회차별 선착순 100명 모집

진행방법

온라인 실시간 화상(Zoom) 진행

-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특강 당일 실시간 화상 링크 발송 예정
- ※ 특강 2회 이상 참여 학생 자기계발활동기록부 활동내용 기재

문의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지원센터 ☎ 062-530-0916

01

창의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함께 읽기

일시 21. 1. 26.(화) 14:00~16:00

강사 정미선(국어국문학과 강사)

02

감성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함께 읽기

일시 21. 1. 28.(목) 14:00~16:00

강사 김형우(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03

공동체

한나아렌트 <에루살렘의 아이히만>

함께 읽기

일시 21. 1. 29.(금) 14:00~16:00

강사 유석환(지역어문학기반형융합미래인재양성교육
연구단 학술연구교수)



창의

융합역량

01 코스모스_칼 세이건

02 동심_에드워드 램슨

03 박히스토리_데이비드 크리스찬 외

04 열두발자국_정재승

05 김상욱의 과학공부_김상욱

06 당신 인생의 이야기_테드 창

07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_김초엽

융합역량이란?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 사고실험으로서의 SF, SF장르에 대한
아주 정확한 겨냥으로서의 김초엽 소설

목 차

1. 김초엽 작가 소개
2. 김초엽 소설 세계의 키워드들
3.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4. 소설집 들여다보기
5. 더 읽을 거리

작가 소개

김초엽 작가

- 1993년생
- 여성과학기술인
포스텍 화학과 졸업, 생화학 석사
-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관내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 한국 SF문학장에서 활동



문학살롱 초고(@SALON_DE_CHOGO) 21.1.12.
김초엽 작가X황선우 작가 인스타 라이브 대담 중

김초엽 소설 세계의 키워드들

과학
기술학

SF의
장르적
컨벤션

사고
실험

여행
으로서의
소설

낯설게
보기

공존의
윤리

사이보그
타자

체현된
마음

교차성
정치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

함께
살기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과학기술학의 지평과 포스트휴먼 사회의 도래

4차 산업혁명, NBIC, 급진적 변화의 시나리오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변화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기술/과학

트랜스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휴먼 사회의 도래에 대한 이론, 전망들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과학기술학의 지평과 포스트휴먼 사회의 도래

**“정보 과학기술의 부상은
혁신적 변화의 기치하에
인간 문화의 오랜 사회적 배치와 문화적 가정들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부각시키는 순간.”**

(루시 서치먼, 페미니스트 STS와 인공의 과학, 과학기술학 편람 1, 아카넷, 2019, 264쪽)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과학기술학의 지평과 포스트휴먼 사회의 도래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다.

VS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는 특권적 경계선은 없다.

-비인간과 구별/짓기의 역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론, 가치관, 윤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포스트휴먼 사회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분법

테크노유토피아/테크노필리아

테크노디스토피아/테크노포비아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테크노유토피아와 테크노디스토피아로부터

복잡계적 현실을 비평하기

테크노트로닉 사회, 포스트휴먼 사회에
개입하는 방법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테크노유토피아와 테크노디스토피아로부터
복잡계적 현실을 비평하기
테크노트로닉 사회, 포스트휴먼 사회에
개입하는 방법

최적의 도구: SF 서사물을 경유하기!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SF 장르 “SF는 현실을 다시 곰씹어보는 사고실험”(어슐러 르 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공상과학에서 사고실험으로
과학/픽션을 통한 사고실험으로서 SF의 가치

과학+소설 - 인지와 낯설게하기를 매개하는 힘
세계 만들기, 인지적 창발 - 시뮬레이션/픽션
문화의 시침 - 해석공동체(작가/독자 등)의 경험적 현실(규범,
세계관, 인식, 이데올로기 등의 총체)에 기대기/를 흔들기

SF 장르와 과학기술학의 만남

SF 장르 “SF는 현실을 다시 곰씹어보는 사고실험”(어슐러 르 권)

첫째. SF속 미래는 훨씬 더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미래를 진단하고 상상하는 데 유용하다. 픽션화된 상상력은 과학기술 그리고 재조직되는 인간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 소요된다.

둘째. SF는 개연성 있는 ‘다른 여기’를 상상한다. 그 상상력에 의해 증강된 복수의 현실들(realities)은 지금-여기의 현실을 ‘단일한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구획된 상상력에 문제제기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소설집 들여다보기

단편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7편의 단편소설 중 네 편의 소설

「#cyborg+positive」(『모바일 리얼리티』)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어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

유토피아적 세계(마을)를 떠나 '시초지'로 향하는 여행

- 유전공학과 맞춤형 아기: 재생산의 사회생물학, 태생기술과 결함/장애를 제거하기
- “그리고 그들이 맞서는 세계를 보겠지. 우리의 원죄. 우리를 너무 사랑했던 릴리가 만든 또 다른 세계. 가장 아름다운 마을과 가장 비참한 시초지의 간극. 그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누군가와 함께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으리라는 사실을 순례자들은 알게 되겠지.”
- 소수자/아파트헤이트, 분리주의로부터 지금-여기 가능한 투쟁으로

「스펙트럼」 *벌새, 김보라 감독의 단편영화화 진행중

“짧은 수명을 가진 ‘주인’들이 남겨진 반려인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은 무엇일까?”

첫 구상 때의 원제: 나를 키우는 주인들은 너무 빨리 죽어버린다

- 손녀가 이야기하는 할머니 희진의 이야기
- 과학자(생물학자)로서의 희진과 아주 짧은 수명을 가진 루이들
-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루이’가 된다. 그들은 분절된 개체이다. 영혼은 이어질 수 없다. 그들은 다른 루이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같은 루이가 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루이들은 단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종적 한계/이해 가능성/환대

「공생가설」

“인간 종에게 내재된 인간성/たく월성이 공생의 선물이라면”
우주 존재를 상상하는 SF의 장르적 컨벤션으로서 인간을 숙주 삼는
기생존재(에일리언) 혹은 정신기생(mind parasite)

- 류드밀라 마르코프와 발견된 이미 사라진 외계행성
- ‘동물성/인간성’이라는 인간 종(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적 전제를 비틀기: 인간성/たく월성/인간의 존엄성/타
동물종과의 변별/인간중심주의
-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은 외계성이었군요.”

「관내분실」

“엄마가 실종되었다.

그러니까,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1세대 인지과학의 드림비전, 마인드업로딩(mind-uploading)

- **마인드 도서관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사후 마인드 업로딩과 접속/추모가 보편화된 세계**
-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는 흔히 애증이 얽힌 사이로 표현된다. 딸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엄마와 그런 엄마의 삶을 재현하기를 거부하는 딸.” 송지민과 김은하**
- **어머니만의 방과 어머니를 이해하기: 관계 너머 접속하기**

「#cyborg_positive」

“모든 신체는 아름답다 / 신체는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
바디포지티브와 바디뉴트럴의 정치학적 충돌, 지금 여기의
젠더정치 의제를 SF의 사고실험을 통해 확장하기

- 장애학, 페미니즘, 정치학
- “사이보그 긍정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미 지역에서 한 차례 유행했던 태그 운동인데, 아쉽게도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그 운동의 긍정성을 알리는 겁니다. 사이버네틱스 신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긍정함으로써, 사이보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cyborg_positive」

- 전대에서 창의 영역: 테드 창 당신 인생의 이야기 중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와의 공명
- 포스트바디, 신체를 개조하는 포스트휴먼의 꿈에서부터 신체성을 증강하는 신경생물학적 ‘향상’까지
- 장애학의 관점에서 읽기: 불화하는 사이보그
- “신체가 저항 없이 기술을 통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매체가 호도하는 세련된 사이보그 이미지의 허상을 비판한다. 유기체와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기계는 없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말이다.”
- 대상화, 패티시, 소수자 존재의 사회적 인정... 무엇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단편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스펙트럼」

「공생가설」

「관내분실」

「#cyborg_positive」

진보하는 기술과학, 약속의 미래학?

“포스트휴먼 윤리학을 고민하기 위한
사고실험”으로서 김초엽 소설에 접근하기

더 읽을 거리

이 주제가 재미있다고 느낀다면,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는 5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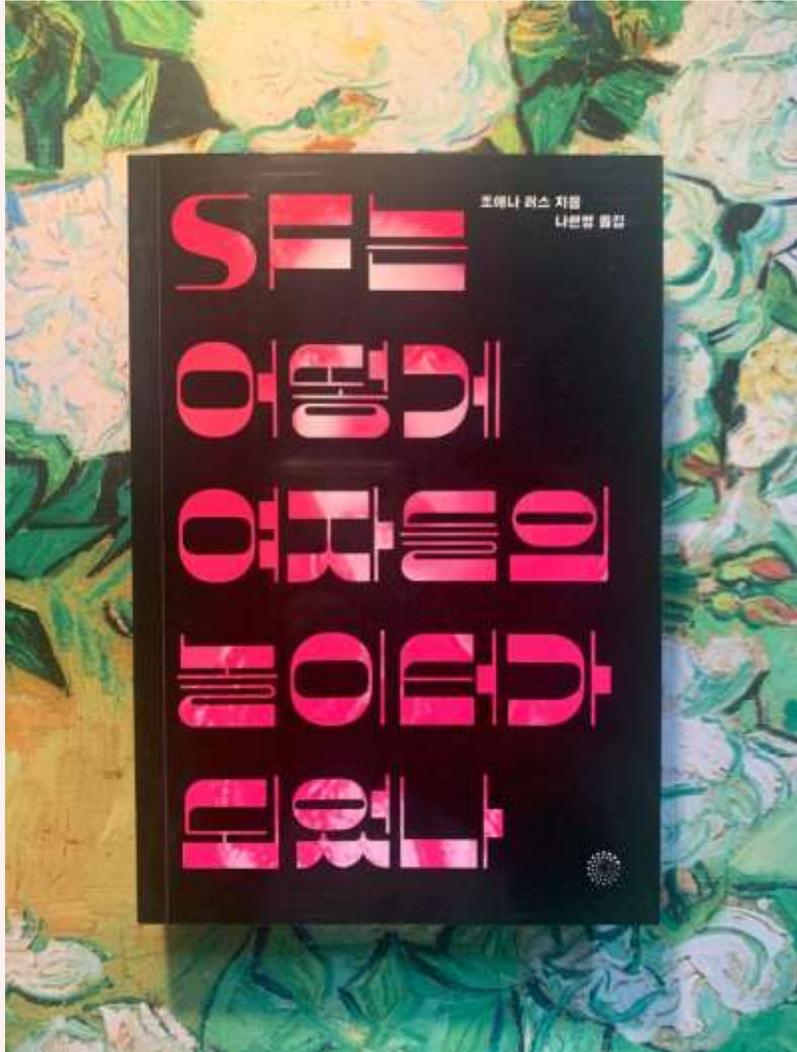
더 읽을 거리



『오늘의 SF』(SF 잡지) 1-2

- 한국 SF 문학의 담론 장에 접속하는 방법
- 천선란, 김보영, 문목하, 박문영, 심너울..... 작가와 작품 소개에서부터 SF 비평을 위한 개념적 도구들에 이르기까지
- 지금-여기에서 생산되는 SF 장르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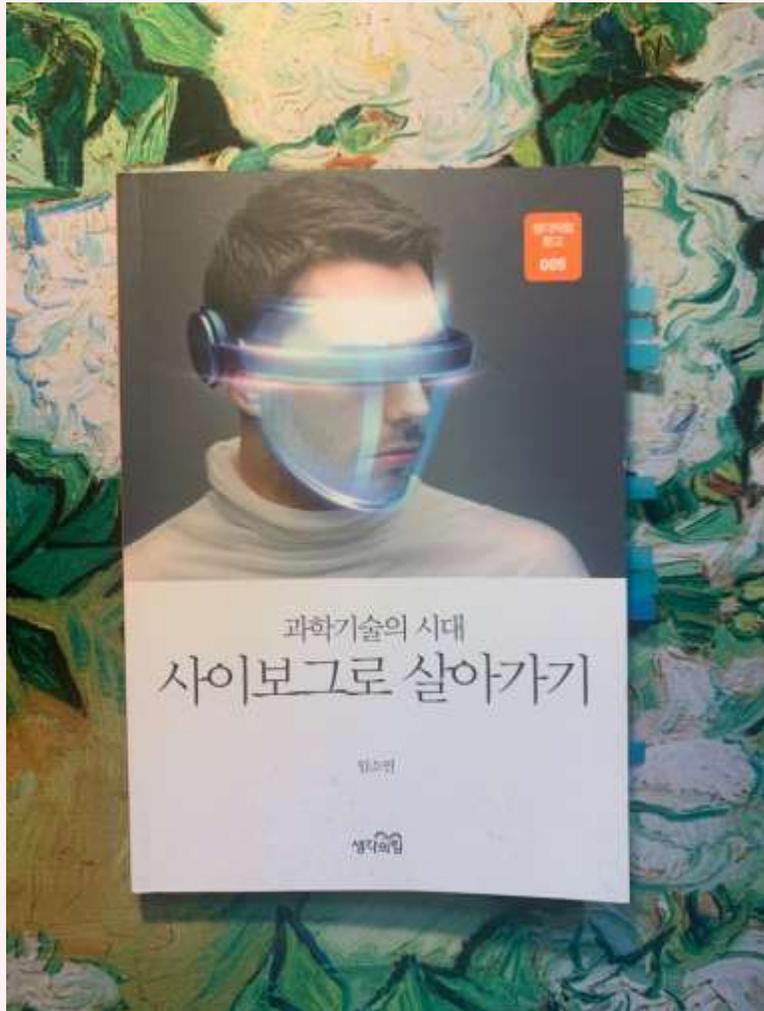
더 읽을 거리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조애나 러스, 나현영 옮김, 포도밭, 2020)

- SF 장르는 왜 소수자의 경험과 접속하는가?
-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부터 페미니스트 SF 유토피아/디스토피아까지,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에 근거한 SF 비평서

더 읽을 거리



『사이보그로 살아가기』(임소연,
생각의힘, 2014)

- 과학기술의 시대와 포스트휴먼의
장밋빛 미래, 테크노유토피아와
테크노디스토피아의 분할 바깥
- 존재에서 행위로: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이 예시하는
“사이보그의 신체로 기술과학에
개입하기, 기술과학을 돌보기”

더 읽을 거리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 2021.

- 김초엽 작가의 신간 에세이
- “사이보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장애학X기술과학X페미니즘(crippling feminist technoscience)의 접근가능성
- 장애학의 관점에서 포스트휴먼 사회/SF에 접근하기

더 읽을 거리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송은주, 웨일북스, 2019)



- 국내외 SF 문학을 경유하여, 각각의 SF/가능세계들을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자원”으로 삼는 방법
- 이 영화/드라마/소설이 SF였어? 혹은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야? 블랙미러, 시녀 이야기, 스타워즈.....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SF의 장르적 컨벤션을 비평하기

감사합니다.